

경제

950붕괴... 통화스와프 前으로

美 디플레이·기업부도 공포... 증시 불안 계속

금융시장이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다시 '패닉(심리적 공황)'에 빠져들었다.

원·달러 환율은 1천500원에 바짝 다가갔고 종합주가지수는 950선까지 무너지며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전의 불안을 재연했다.

◇주가 폭락, 환율 급등 원인은=글로벌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기업이 이익 감소 등의 악재가 합쳐져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증시 약세에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이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환율을 거침없이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실물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추가악재와 환율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미국 경제의 침체가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FOMC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8%보다 크게 떨어진 -0.2%~1.1%로 바꿨다.

◇통화스와프 악발 실종=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모든 지표가 통화스와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효과가 3주 만에 사라진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신용경색, 기업 실적 악화, 디플레이션 우려 등 국내외



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저가매수가 가능하다는 제안도 있지만 악재들이 해소되기까지는 더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실부는 저가매수보다는 현금을 확보하거나 관망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국토신산한중권 이선열 연구원은 "저가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악재들의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 하락 위험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책은 없다=전문가들은 혼돈에 빠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유일한 대안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달에도 증시에서 2조3천억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고 채권시장에서도 두달 연속 순매도 하는 등 '셀 코리아'를 지속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완화시키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외국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건설·조선·해운 등 과잉투자가 만연한 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회복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 코리아'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내년 한국 수출 기상도 유럽·미국 '흐림' 중동·南美 '맑음'

내년 한국의 수출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전하겠지만 아시아와 중동, 남미 지역에서는 선전할 것으로 20일 전망됐다.

연합뉴스가 최근 전세계 주요 10개국의 코트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에 의뢰해 '2009년 수출 전망'을 설문한 결과 유럽과 미국에서 내년 한국의 수출이 보합세 또는 감소가 불가피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중동, 남미 지역에서 수출이 5~30%까지 증가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내년 한국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한자릿수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와 전자, 기계 업종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여전히 율해에 이어 내년의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으로 한국의 수출이 힘든 이유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들 지



역의 실물 경기가 직격탄을 맞으며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아시아, 중동 등의 지역으로 수출 증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 산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한국 기업들이 내년에도 수출을 늘리려면 보다 좋은 품질을 값싸게 공급하면서도 해당국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3대 선진 경제권은 내년에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도 최소 목표 성장률인 8%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영국 스탠더드 차터드은행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에서 1.4%로 대폭 낮추는 등 성장률 1%대를 점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주가 바닥은 어디=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들의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가 모두 지지선을 하향 이탈함에 따라 국내 증시는 전지점인 코스피지수 900선 안



공공근로자·장애도우미 유가환급금 받는다

급여가 지불됐다는 서류가 세정당국에 제출되지 않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던 공공사업 근로자,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기관이 지급명세서서 연말까지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연말까지 제출되면 내년 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들도 지난해 7월~올해 6월 사이 총급여가 80만~3천600만원에 해당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36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창립 40주년 기념식

임직원·고객 500명 참석

광주은행은 20일 오후 5시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행장과 우리금융그룹 김동일 전무 등 은행 임직원과 고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서 송기진 행장은 "역경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40주년 이기에 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을전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이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고객 대표 10여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장기근속 직원과 우수직원을 표창했으며 향후 '광주은행 40년사' 책자를 고객들에게 배부해 지역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 中企 90% "금리인하 조치 대출에 반영 안돼"

광주와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단행한 큰 폭(1%)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와 관련해 167개 회사를 대상으로 주거래은행의 금리 등 대출여건 변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90.4%가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출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종가의 42.1%와 33.3%는 금리가 오하리 인상돼 자금사정이 더 악화된 것으로 응답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여건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대출 한도의 경우 '달라진 것이 없다'는 대답이 61.1%로 가장 많고 '축소' 35.0%, '확대'는 3.8%에 불과했다.

또 '담보요구' 항목은 '동일'이 62.2%로 가장 많았고 '강화' 36.5%, '완화'는 1.3%에 그쳤으며 '대출심사'의 경우 오히려

'강화(52.9%)'했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동일' 45.8%, '완화' 1.3%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현 자금사정에 대해서는 '원활'이 1.2%, '보통'이 29.1%, '곤란하다'는 답은 69.7%나 돼 당장 자금사정이 급박함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기의 26.1%는 '직원봉급을 주지 못하고' 77.4%는 '의상 대금 지불 지연', 28.7%는 '공과금·세금·대출금 등의 연체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부채 비율 낮고 ROE 높은 기업 불황서 웃는다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최후의 승자는 부채비율이 낮고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높은 기업집단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성진경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20일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과 IT버블, 신용카드 사태 등을 계기로 체계의 순위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낮고 ROE가 높은 기업들이 약진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그룹사들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과거 위기국면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들은 세계 순위 30위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성 팀장은 부채비율과 ROE 두 가지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 LG와 포스코(POSCO), 현대자동차, 삼성, SK 그룹 등이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삼성경제 "실물경기 회복 최소 2년 걸린다"

국내 금융시장은 내년 말까지 점차 안정되겠지만 실물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 개최한 조건 강연에 나와 "올 4분기 이후 외환시장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정 소장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경상수지 흑자전환 등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원인으로 꼽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

실과 건설사 자금 등 불안요인이 남은 만큼 내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신용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 4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45억달러로 추정하고 "정부의 은행 해외차입 보증과 각국의 구제금융 조치 등에 따라 달러

수급상황도 개선되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천40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국내 실물경기가 2010년 이후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설탕값 15% 인상 CJ제일제당 25일부터

경기 침체로 가게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설탕 가격까지 오르게 됐다.

CJ제일제당은 25일부터 설탕제품의 출고가격을 평균 15%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장 출고가격 기준으로 하얀설탕 1kg은 890원에서 1천199원으로, 15kg은 1만1천385원에서 1만3천3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각각 국내 설탕시장을 CJ제일제당이 49%, 삼양사와 대한제당이 각각 32%, 19%로 3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CJ제일제당이 이번에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곧 뒤따라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밀빠진 독'

130조 투입 불구 기업·은행권 자금난 호소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했거나 지원할 금액이 130조 원을 넘지만 자금시장의 경색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와 기업은 외화 뿐 아니라 원화자금 조달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금융불안은 실물 위축, 기업부도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으로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정부의 각종 대책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난을 달기 위해 지금까지 약 300억 달러를 공급한 데 이어 수출입금융 지원 160억 달러 등 추가로 250억 달러를 풀 예정이다.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해서는 140억 달러의 지급 보증을 설 계획이다. 이를 원화(9~10월 평균 환율 1,231.7원 기준)로 환산하면 총 85조 원에 이른다.

또 금융회사와 기업에 원화 유동성을 수혈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2조5천억 원 늘렸고 이달 들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2조 원을 공급했다.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매입에 나서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중저(1조3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5천억 원)과 보증 확대(6조 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금액은 외화와 원화를 모두 합하면 133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최근 한 달간 1.25%포인트나 인하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로 달러와 환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고 외화 조달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자산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시장 투자설명회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전 위원장은 19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1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다양한 위기극복 대책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는 리스크를 활용해야 하는 반면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후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22	02-780-9595
청호나이스	[광주]영업관리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4	02-522-0318
클라리스코리아유	클라리스 백화점 뷰티컨설턴트 정규직(광주 신세계백화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4	02-3014-2923
㈜아이넷스쿨	홍보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25	062-236-3195
ING생명(본사)	[본사-(동외)고객상담원]저축성상품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27	02-3452-2612
㈜케이엔씨엘빙	매장관리, 상품안내 및 판매, 계산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7	062-530-0431
CJ홈쇼핑	[홈쇼핑]1차종외고객(재테크)월령4000만/보장120만	고졸/경력무관	4000~5000	11/27	02-2201-5205
㈜유니스트리아	시각디자인(경력), 출력&디자인 및 사무보조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62-514-9652
김운건설	총무사무 및 입찰관리 경력직	대졸/경력2년	1800~2000	11/28	010-2627-2005
씨에스컴	[광주]신입 및 경력직 응용프로그램머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8	070-7580-1900
㈜레테크	파나소닉 물류창고 사원 (남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9	070-7019-0281
㈜코리아메이커리	광주지역 제빵사 모집/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9	062-674-0855
비타민하우스	비타민(하우스)주 전담대학병원(화순) 상담영양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30	02-576-753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